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스님은 저만치에 계실뿐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사

성철스님 ㉔



성철스님 진영 (1994년, 253×183cm, 수묵채색, 해인사 백련암 소장). 진영은 표현대상자의 외모는 물론 삶과 정신까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 한다는 것이 화가의 인생을 걸 만큼 즐거운 명이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1994년, 185×95cm, 수묵, 해인사 백련암 소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이 물 위로 간다. 스님은 백련암 앞마당에 머물러 가는 노을 속에 서서 함께 물들었다.

처음 성철 스님의 그림을 부닥 받은 것이 1994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그 자리에 성철스님의 상좌이신 원택 스님과 원영스님 그리고 사진작가이신 주명덕 선생님이 함께 계셨다. 나는 성철 스님의 다비식에 다녀온 경험이 있던 터라 자연스레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와 분위기에 동화 되었고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었다. 나를 부른 이유는 “성철 스님의 진영을 모셔야 했는데 그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원택 스님께서서는 “노장님의 참 모습을 보고 싶다. 이를 모실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다”며 “스님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하든 화가의 몫이다. 다만 김호석이라는 화가가 작업한 작품 중 최고의 득의작(得意作)을 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도 원택 스님의 작가에 대한 신뢰에 감사 드린다. 나는 그 말씀 덕에 성철 스님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성철 스님이 수행 공간으로 삼았던 모든 장소를 답사하며 스님의 체취를 느껴 보고자 했다. 그리고 스님께서 영향을 받거나 말씀하셨던 글을 찾아 연구하듯 읽어 나가며 스님과의 눈높이를 맞추어가려 노력했다.

해인사 등 답사 스님 체취 느끼려 했지만

천학비재 화가에겐 멀게만 느껴져

외형보다 '알' 스민 선화 장르 확장 계기



성철스님(1994년, 164×125cm, 수묵, 해인사 백련암 소장). 스님은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는 스님을 무서워했다. 스님은 아이의 낮가리는 모습조차 사랑스러워했다.

이렇듯 성철 스님의 진영을 그리기에 앞서 많은 공간과 시간을 쏟아 부은 것은 단순한 외형 묘사를 넘어 열과 마음이 스며있는 존상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스님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30여점을 그렸고 동시에 초상화 작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성철 스님의 행상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시대의 선화적 작업을 확장시켜 새로운 장르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도 만들어 주었다. 선화라 명명할 수 있는 수묵화 작업들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러 미술 평론가들로부터 의미 있는 전사로 평가 받았다.

나는 성철 스님을 주제로 한 수묵 인물화 전시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작업에 대한 감회를 남겨 두었다.

〈이제 다 왔다. 아니 다 온 것 같다. 그런데도 전혀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 참으로 무모한 경험이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이 물 위로 간다. 둥근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답답한 일이었다. 돈오점수는 좀 알겠는데 돈오돈수는 또 무엇인가. 깨우침과 깨침이 다르는데 어떻게 다르냐. 눈을 떠야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그 파격과 역설의 진실이, 먹물만 다루고 살아 온 이 천학비재(淺學非才)의 화가에게는 너무도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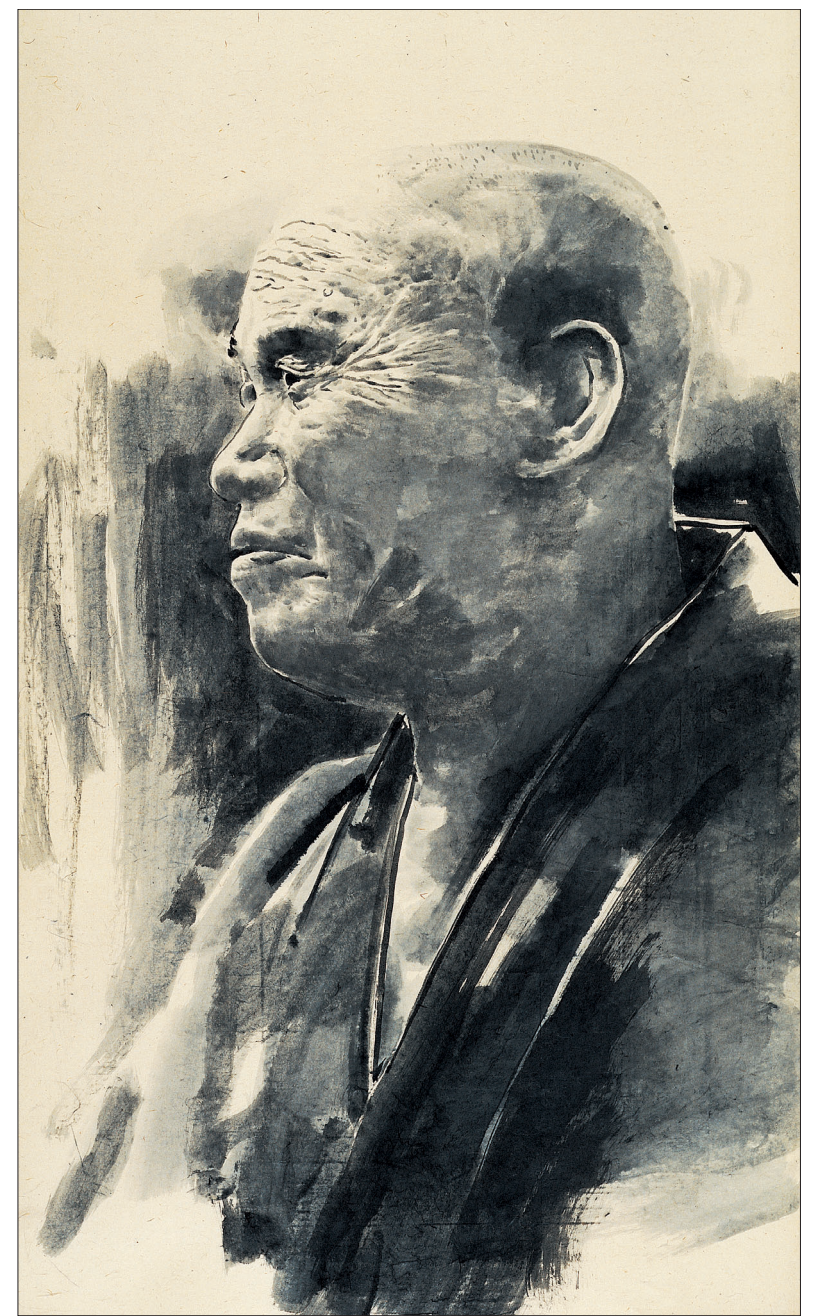
나는 불자도 아니고 스님을 뵈는 적도 없었다. 집착하면 할수록 얼굴로는 오지 않고 말씀으로만 오는 분이였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분의 영상이 잡힌단 말인가. 번번이 좌절하고 누우치며 드는 생각이란, 스님의 영정과 구도 행적을 내 붓에 가두어 보겠다고 담빈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뿐이었다. 막막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발길이었다.

일단 붓을 놓았다. 그리고 큰 스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 또 그분의 체취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은 욕심에 기회가 닿는 대로 해인사를 찾았다. 스님께서 바위처럼 여여부듯한 모습으로 스스로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되고자 한 그 곳에서 노을 속에서 함께 물들면 잡힐 듯 말 듯 한 느낌이 살아나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가서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 다가서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또한 착각이었다. 다가설수록 큰 스님은 더 저만치 물러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끝내 스님을 만나 볼 수 없었다.

지금 와서 작업을 끝냈다는 뿌듯함을 찾을 수 없다. 오직 그 자리에 큰 스님 가신 길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만이 있을 뿐이다.

이 어려운 일을 조금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늘 서슴이 펴려져 있는 나의 갈 끝 같은 긴장을 말없이 견뎌 준 아내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다.



성철 스님(1994년, 184×96cm, 수묵, 해인사 백련암 소장). 이 먹물 한두 점만으로 스님의 정신세계를 담는다는 것이 무모한 일이었다.

작가 소개

김호석은 1957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홍익대 동양화과와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한국암각화의 도상과 조형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시절 중앙미술대전에서 〈아파트〉로 장려상을 수상(1979)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화, 농촌 풍경화, 역사 인물화, 서민 인물화, 가족화, 성철 스님화, 선화, 균중화, 동물화 등의 작품을 통해 우리시대의 정신과 삶의 모습을 형상화 하는데 몰두해 왔다.

특히 조선 시대 초상화 기법으로 현대 서민들의 얼굴을 그려 동시대의 표정을 생생히 살려낸 점은 잊혀진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모범이라 하여 국제적으로 크게 호평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김호석 전’을 비롯해 21회의 초대 개인전을 가졌으며 뉴욕 퀸즈미술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에서 개최한 300여차례의 단체전 및 기획 초대전에 참가했다. 여러권의 화집을 펴냈으며,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깎출 수 있습니다.

◆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 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여 보십시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수여됩니다.
-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⑤ 법사종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교석학과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2015년 2월 27일까지(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02)733-1959
720-1836

제 10기 불교의식(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승가회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 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 중송, 향수하례, 삼보통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칭, 지장칭, 신중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만, 구명시식.
중급과정 (범음·범패)	상주권공, 대령판곡, 신중39위 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화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계, 사다라니 작법, 범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칭, 목탁, 요령

-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 개강일시 : 2015년 2월 7일(토요일) 오후 2시
- ◆ 수 업 : 매주(금·토) 오후 2시 ~ 5시까지
-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도동44) 팔공IC 5거리
TEL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불교대학 · 무파사 학장 일관 합장